

## 견봉하 감압술 시행 여부에 따른 회전근 개 봉합술의 임상 결과 비교

이화의대 목동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신 상 진

### 서 론

회전근 개 파열의 병인이 외적인 요소보다 내적인 요소와 관계가 많다는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회전근 개 봉합술과 함께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견봉하 감압술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견봉하 감압술 시행 여부에 따른 회전근 개 봉합술의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였다.

### 재료 및 방법

회전근 개 봉합술 시 견봉하 감압술 및 오구-견봉 인대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41명 (1군)과 견봉하 감압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43명 (2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당시 평균 연령은 1군이 56세 (38~76세), 2군이 57세 (45~75세)였다. 양군 모두 특발성 파열이 가장 많은 수상 원인이었으며 증상 기간은 1군이 14개월, 2군이 16개월이었다. 1군 환자들의 견봉 형태는 2형이 32명, 3형이 9명이었으며, 2군에서는 2형이 45명, 3형이 8명이었다. 견봉의 골극 형성으로 견봉하 감압술을 시행한 경우와 회전근 개 부분 파열로 수술한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수술은 모두 관절경으로 시행하였으며 술 후 통증은 자가통증 조절 장치를 견봉하 공간에 삽입하여 조절하였다. 통증 정도는 Visual analogue scale로 술 후 3일까지 6시간마다 그 후 1, 3, 6, 12 개월에 측정하였으며 기능 평가는 Constant 점수 및 UCLA 점수를 사용하였다. 추시 관찰 기간은 평균 16개월이었다.

### 결 과

1군의 회전근 개 파열의 평균 길이 및 너비는 2.2 cm×1.6 cm 이었으며 2군은 1.9 cm×1.4 cm 이었다. 통증 정도는 술 후부터 6시간마다 3일까지 측정된 점수는 양군이 비슷하였다. 수술 후 1달 및 3달의 통증 지수는 2군이 약간 낮았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다. 1군의 평균 전방 거상 범위는 술전 127°에서 술 후 1년에 162°로 증가했으며 2군은 130°에서 술 후 1년에 167°로 증가했다. Constant 점수는 양군 모두 수술 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여 최종 추시 결과 1군 79점, 2군 83점이었다. UCLA 평가 결과 양호 이상이 1군은 34명, 2군이 38명이었다. 회전근 개 재파열로 수술받은 환자는 없었으며 양군에서 1명씩 동결건이 발생하여 관절낭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 결 론

회전근 개 봉합술의 임상 결과는 견봉하 감압술 여부에 관계없이 비슷한 통증과 운동범위 및 근력 회복을 보여 주었다. 견봉하 감압술이 추후 회전근 개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 추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단기 추시 결과 회전근 개 봉합술과 동시에 시행하는 견봉하 감압술은 임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